

구트번스터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저성인인 이어령 선생님은 이 책을 21세기 한국을 창조해 나갈 미래 인재들에게 주어 줄 '보물지도'라고 극찬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수많은 장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그 학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통합」에서 저자는 "통합적 이해는 갑작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통합적 이해의 정의를 내린 후 "생각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거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성이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 시인들은 시각, 촉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을 종합하여 사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파인먼과 같은 수학자는 글자들에서 다양한 색을 보았으며 칸딘스키에게 색채는 소리와 운동 간접적 느낌, 술한 감정을 불러일으기 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색의 맛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지아 오카프(비아울린 연주자), 글을 쓰면서 음악을 느꼈던 허렐드 펀터(극작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색을 지각했다는 테이비드 호크리(회기), 어떤 시물을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만졌을 때 색을 보았던 캐럴 Z. 스틸(화가) 등 청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갑작교차현상의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 다. 여기까지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만이 공감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의 논지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공감각적 사고가 필요하며 흘륭한 교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림책

「곰 사냥을 떠나자 We're Going On a Bear Hunt」

헬렌 옥센버리 그림 | 마이 루센글 | 공경희 역 | 시공사 출판

⑤ 현우자(성균관대 이동철교수·현우교수)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일기가 제공하는 교육적 유익은 이 책에서 소개된 생각의 도구와 일치합니다. 공감각적 사고는 그 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보면 유이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유이는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감각을 느끼고 볍새 말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이들은 그림책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워하고 놀라고 긴장하고 슬퍼하는 감정 이입을 경험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동작을 흡사 내면서 그 상태와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 일기 행동이 보여주는 특성은 결과

보다 과정이 우선시 되며 물업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놀이의 특성과도 유사합니다. 이런 한 감정 이입 현상은 「생각의 탄생」에 소개되는 8번째 생각도구로, 놀이는 11번째 생각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헬렌 옥센버리의 「곰 사냥을 떠나자」는 그림책 일기가 공감각적 사고, 감정 이입,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노여줍니다. 우선 이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를 펼쳐 보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소년이 앞장을 서고 있으며, 그 뒤에는 이기(이기)를 떠운 아빠, 그다음엔 어린 소녀, 그 뒤편 엄마같이 보이는 간 머리의 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과 입 부분에 흰 털이 있는 검은 사냥개가 차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두 어린 소년 소녀의 한 발은 빙에, 그리고 다른 발은 공중에 둘려있어 그들의 행동은 걷는다기보다는 가볍게 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끔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한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면자는 낮은 물결과 모래톱의 바닷가 아침 풍경이 그려져 있고, 표지 암쪽에는 겉표지에 있었던 그 가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첫 페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며 풀밭 속을 걸어가는 가족을 보게 됩니다.

곰 잡으려 간단다.  
큰 곰 잡으려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님도 안 무서워.



어라! 풀밭이 높아!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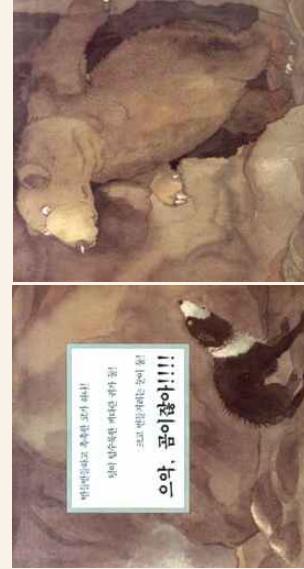
이기(이기)는  
날마다 물결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그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그들은 풀숲을 헤치고 구릉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글 상자 안의 텍스트는 그들이 풀밭을 헤쳐나갈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하였습니다.



글 텍스트와 플롯의 반복 그리고 후박과 칠리가 교차하는 그림이 어우러져 이야기에 리듬감을 더해 줍니다. 처음엔 풀밭이었지만 그니음엔 강물, 진흙탕, 깊은 숲, 눈보라, 동물이 풀 사냥을 떠나 이 가족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굴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을 때...



정작 곰을 만나자 그동안의 결의는 간て없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걸음아 나 살라라 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냥개가 가장 앞서서 뛰어갑니다. 오던 길 그대로 태돌아 집에 도착한 그들은 풀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두지동 현관문을 닫고 그것도 불안하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침대 이불 속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 이불 속으로 체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인물도 사냥개입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다시는 곰 잡으러 가지 않을 테야.”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런 책은 어떻게 읽어줄까요? 책은 본래 청각적인 매체이지만 그림책은 글, 그럼 언어로 이루어졌으니 청각적인 동시에 시각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부모와 자녀는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듣고 귀로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쓰인 의상들은 대부분 신체와 차연물이 접촉하면서 나는 소리(“시각 서적”, “털벌 털벌”, “처변 칠번”, “부시랑 무시렁”)으로 두자의 축각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촉각이 동원되어 등장인물과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각적 경험이 가능한 것은 이 작품에서 의상어의 선택,

글자체와 크기, 그림과 글의 레이아웃이 치밀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은 품 사냥을 빙자한 놀이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테에 있습니다. 그들의 풀 사냥은 ‘노래 부르기’, ‘비발을 미끄러져 내려오기’, ‘헤엄치기’, ‘전총 뺨기’ 놀이, ‘숨 비죽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유령 놀이’ ‘집기 놀이’와 같은 유년기의 놀이가 턱ちゃん이 나는 놀이입니다. 책을 읽는 유아들은 풀에 쭉쫙 짚으로 달려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도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만 내놓고 있는 가족을 보며 이내 웃음을 터뜨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디를 아닌 아기입니다. 이를 봄으로 눈만 내놓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아기만 끈 돌이 인형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흐름은 아닙니다. 뒤 면지의 그림까지 읽은 독자는 지금껏 전개된 가족의 놀이 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앞면지에 그려졌던 바닷가에 이제는 어둠이 깔리고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으며 그 모래톱 위를 곰이 어깨가 쭉 처진 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곰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혹시 너도 그들과 놀고 싶었던 거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집까지 떠나왔던 거니?”

그럼책 읽기는 어떤 유아가 세상을 시작하고 이해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어느 가정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며 무엇보다 그림책 읽기가 본질적으로 ‘놀이와 흥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이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입니다. 책 읽기를 산 오르기에 비유한다면 자녀가 산을 빠리 오르도록 채축하는 부모가 아니라 산을 오르면서 갈기에 아무렇게나 나고 자란 풀과 관목, 온갖 종류의 세소리, 이름 모를 들꽃과 꽂이치며 흐르는 계곡물에 대해 같이 이어기 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산을 오르기만 한 자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산 정상에 도달할 순 있었지만, 산이 풀고 있는 풍성한 세상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학습하기 위해선나 글자 익히기를 목표로 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자녀는 글자를 빨리 익힐지 모르겠으나(실은 많은 연구는 이것이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가 선사하는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고마하던 어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와 함께 신 나게 풀 사냥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현은아 성균관대학교 청소년학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